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실태

최은미 · 송윤신

경북대학교 치위생과

The dental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pocheon city and the analysis of their oral health behavior

Eun-Mi Choi · Yun-Sin S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b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foreign workers and dental care in the community is to identify actual oral health conditions of immigrated labors, to promote their oral health and to gather basic data providing them with proper oral health services

Methods :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ers wrote their own surveys in English, in Vietnamese, in Tagalogue, in Thai. Making questions on the paper to 114 foreign workers in Pocheon, Gyeonggi-do were surveyed. Using the program SPSS 17.0 for Windo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frequency analysis, the chi-square analysis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recognize their relevance between the oral health status and the actual oral care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oral health.

Results :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workers i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male demographic 78.9%. By age, 20-29 years of age accounted for 50%, and duration of stay in the city is less than 3-5 years to 68.4%, It was most common. The percentage going to the dentist when teeth hurt is although 56 percent. But the ratio to endure the pain without going to the dentist, was 44%. The main reason to not go to the dentist was the time 55.2% and cost 11.9%. A mere 9.6% of respondents knew about the free dental care and used. 67.5% of them was not aware of the free dental care agency, 59.6% were keen to use the free care. However, 40.4% did not want a free dental care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time(26.3%), the distance is far away(3.5%),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3.5%) and the other(66.7%).

Conclusions : The major percentage of the other reason(66.7%) why they did not want to go to free dental service, must be specifically identified. For the activation of free dental services, the active suppor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eded. By focusing on health-related departments of the University in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program of the oral health care for foreign workers.(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1):135-143)

keyword : dental care service, foreign workers, oral health behavior, perceived oral health

색인 : 구강보건인식, 구강보건행태, 외국인 근로자, 치과진료

1. 서론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부터 국제간 노동력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중동지역에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로 국제 무역을 창출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생산직 공장의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¹⁾.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6만 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69만 명이고, 17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²⁾.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하급수적인 수적 증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 제공이 대두되었다. 국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력을 창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로 국가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인권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를 보장해 주고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는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문제와 관련된 의료혜택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산업연수생에게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으면 가입 여부조차도 알 수 없으며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⁵⁾.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⁶⁾, 서울시 또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료혜택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정

책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메디컬분야에서는 미약하나마 제시되고는 있지만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정책은 아주 미미하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외국인근로자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진료 장비가 장착된 이동진료차량 ‘사랑의 이동클리닉’을 제작, 매주 일요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와 연계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적으로 치과의료 봉사 단체가 결성되어 산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치과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과 관련이 있는 최근 연구는 고⁷⁾등의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의 치과진료실태 연구와 김과 정⁸⁾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구강건강관리 실태 및 인식경험영구치지수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모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경기도 포천시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실태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문을 영어, 베트남어, 파갈로그어, 태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맞은 언어를 이용하여 개별 면접조사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률이 낮은 6부를 제외한 114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PSS 17.0[®](SPSS-PC 17)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구강건강행태와 구강진료실태 그리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포는 <표 1>과 같다. 전체대상자 중 남자는 90명(78.9%), 여자는 24명(21.1%)으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20~29세가 50%로 가장 많았다. 한국체류기간은 3~5년 미만인 68.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18명(15.8%)이었다. 출신지역은 남아시아가 50명(43.9%), 동남아시아 64명(56.1%)이었

고, 병원진료경험 ‘있다’에 70명(61.4%), 자신의 구강은 ‘건강하다’에 72명(63.2%)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따른 일반적 특성분포는 <표 2>와 같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성별, 연령,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출신국가에 따라 남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구강건강행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칫솔질 횟수는 하루에 두 번 닦는 사람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일일 칫솔질 횟수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치아가 아플 때 대처하는 행동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90	78.9
	여자	24	21.1
연령	20~29세	57	50.0
	30~39세	46	40.4
	40~49세	11	9.6
	50~59세	6	5.2
체류기간	6개월 미만	2	1.8
	6개월~1년 미만	11	9.6
	1년 이상~3년 미만	5	4.4
	3년 이상~5년 미만	78	68.4
	5년 이상	18	15.8
한국인과 결혼유무	예	18	15.8
	아니오	96	84.2
출신국가	남아시아	50	43.9
	동남아시아	64	56.1
병원진료 경험	있다	70	61.4
	없다	43	37.7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건강하다	72	63.2
	건강하지 않다	42	36.8

표 2.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일반적 특성 및 구강건강행태와의 관련성

항 목	구 분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χ^2/p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소계	
성별	남자	58(51.3)	31(27.4)	89(78.8)	.980/.322
	여자	13(11.5)	11(9.7)	24(21.2)	
연령	20~29세	36(31.6)	21(18.4)	57(50.0)	.435/.805
	30~39세	30(26.3)	16(14.0)	46(40.4)	
	40~49세	6(5.3)	5(4.4)	11(9.6)	
아시아분류	남아시아	40(35.1)	10(8.8)	50(43.9)	10.857/ .001**
	동남아시아	32(28.1)	32(28.1)	64(56.1)	
체류기간	6개월 미만	2(1.8)	0(0.0)	2(1.8)	4.416/ .353
	6개월~1년 미만	9(7.9)	2(1.8)	11(9.6)	
	1년 이상~3년 미만	2(1.8)	3(2.6)	5(4.4)	
	3년 이상~5년 미만	49(43.0)	29(25.4)	78(68.4)	
	5년 이상	10(8.8)	8(7.0)	18(15.8)	
칫솔질 횟수	칫솔질하지 않음	6(5.3)	2(1.8)	8(7.0)	7.635/ .054
	하루 한 번	19(16.7)	3(2.6)	22(19.3)	
	하루 두 번	31(27.2)	26(22.8)	57(50.0)	
	하루 3번 이상	16(14.0)	11(9.6)	27(23.7)	
치아가 아픈면	참는다	4(3.5)	7(6.1)	11(9.6)	9.615/ .008*
	약을 먹는다	20(17.5)	19(16.7)	39(34.2)	
	치과에 간다	48(42.1)	16(14.0)	64(56.1)	

*p<0.05, **p<0.01

3.3. 치아가 아플 때 대처방법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간다’가 56.1%로 가장 높았으며, ‘약을 먹는다’ 34.2%, ‘참는다’ 9.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치아가 아플 때 대처법은 남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치아가 아플 때 대처법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치아가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 중 ‘참는다’와 ‘약을 먹는다’에 응답한 사람들이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와 치과에 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복수응답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간이 없어서’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돈이 없어서’가 11.9%로 나타났다. 치과에 가지 않았을 때 발생한 문제는 ‘일하기 힘들’이

31.8% ‘음식 씹기 힘들’ 27.2%, ‘발음 부정확’ 21.2%, ‘심미적 걱정’ 19.8% 순으로 나타났다.

3.4.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실태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 실태는 <표 5>와 같다. 무료 치과진료기관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7명(67.5%)로 가장 많았으며, ‘알고 있으며, 이용한다’에는 11명(9.6%)만이 응답하였다. 46명(40.4%)이 무료치과 진료기관 이용을 원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기타’에 76명(66.7%), ‘시간이 없어서’는 30명(26.3%)이 응답하였다.

표 3. 치아가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에 따른 출신지역,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전체		출신지역		χ^2/p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χ^2/p
	빈도	백분율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높다	낮다	
참는다	11	9.6	5(4.4)	6(5.3)	6.124/	4(3.5)	7(6.1)	9.615/
약을 먹는다	39	34.2	11(9.6)	28(24.6)	.047*	20(17.5)	19(16.7)	.008**
치과에 간다	64	56.1	34(29.8)	30(26.3)		48(42.1)	16(14.0)	
계	114	100.0	50(43.9)	64(56.1)		89(78.8)	24(21.2)	

*p<0.05, **p<0.01

표 4. 치아가 아파도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문제점

항목	구분	빈도(%)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n=67)	시간이 없어서	37(55.2)
	돈이 없어서	8(11.9)
	거리가 멀어서	5(7.5)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5(7.5)
	보험이 안 되어서	5(7.5)
	기타	7(10.4)
치과에 가지 않았을 때 생긴 문제(n=66)	발음 부정확	14(21.2)
	음식 씹기 힘들	18(27.2)
	심미적인 걱정	13(19.8)
	치통으로 일하기 힘들	21(31.8)

표 5.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실태

항목	구분	빈도(%)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	알고는 있음	15(13.2)
	알고 있으며 이용함	11(9.6)
	알지만 아직 이용하지 않음	11(9.6)
	알지 못함	77(67.5)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을 원하는가?	예	68(59.6)
	아니오	46(40.4)
무료 치과진료기관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	30(26.3)
	거리가 멀어서	4(3.5)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4(3.5)
	기타	76(66.7)

3.5.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건강관련 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대상자들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출신지역($r=-0.34$)만 유일하게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상관은 없었으나 변수들 간에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연령과 체류기간, 연령과 치아의 중요성, 연령과 칫솔질의 중요성, 체류기간과 치아의 중요성, 일일 칫솔질 횟수와 출신지역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아의 중요성과 칫솔질의 중요성($r=0.710$)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총괄 및 고안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자국민보다 상대적으로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질병이 발생되더라도 고가의 치료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질병이 발생되어 외래진료기관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시 이동거리,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국민에게 보장되는 의료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이민과 공중보건' 팀을 설치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민간단체중심으로 의료자원 봉사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실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포천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결과¹⁰⁾, 2010년 포천시 성별 외국인근로자 수의 비율은 남성 82.9%, 여성 17.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78.9%, 여성이 21.1%로 나타나, 포천시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는 여성의 비율이 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포천시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국

표 6.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구강건강관련 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나이	1.60	.661	1						
2. 체류기간	3.87	.857	.202*	1					
3. 더미변수 출신지역	.44	.498	-.049	-.133	1				
4. 치아의 중요성	1.83	.977	.210*	.196*	-.048	1			
5. 칫솔질의 중요성	2.04	1.144	.194*	.158	-.027	.710**	1		
6. 일일 칫솔질 횟수	2.90	.841	.057	.093	-.236*	-.127	-.171	1	
7.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2.25	.881	.026	.139	-.337**	.101	.061	.129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적비율은 남아시아가 35.1%, 동남아시아는 64.9%였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포천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국적 비율에 비해 남아시아인은 12.8% 많고, 동남아시아인은 8.8% 더 적게 나타났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적에 따라 주로 거주하는 시군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같은 국적이라도 성별에 따라 거주하는 시군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¹⁰⁾.

주관적 건강은 임상적 건강상태와 함께 건강수준을 예견하는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을 측정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예견하는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에 대한 설문은 5점 척도의 등급화 형식으로 선학들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건강하다’와 ‘매우 건강하다’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간주하여 ‘건강하다’로 평가하였고, ‘보통이다’ 이하의 답변을 부정적인 답변으로 ‘건강하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이는 5점 척도 사용 시, 설문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응답 대신, ‘보통’이라는 응답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선학들의 연구결과들을 준용한 것이다¹¹⁾.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상태이므로 실제보다 건강상태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¹²⁾. 이 연구에서도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72명(63.2%)으로 나타나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가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설⁴⁾은 외국인 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플 때 통원치료(병원)가 31.1%, 약복용이 30.7%로 나타났으며, 홍¹³⁾ 등이 2006년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아플 때 치료방법으로 통원치료가 33.3%, 정기적으로 약복용 23.3%, 치료받지 못함 18.3%, 입원치료 1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¹⁴⁾의 연구에서는 아팠을 때 병원치료 49.2%, 치료받지 못했다 6.2%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플 때 치과에 간다 56.1%, 약복용 39%, 참는다 9.6%로 나타나 설 등^{4, 13, 14)}의 연구에서 아팠을 때 병원치료를 받는 비율에 비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거나 약으로는 잠시 통증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며, 치과치료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가 아파도 치과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55.2%, ‘돈이 없어서’ 11.9%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 등^{4, 5, 13)}의 연구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부담과 시간부족이 힘든 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대부분의 아시아계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근무환경, 시간부족,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무료 치과진료 희망자가 59.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4%는 무료 치과진료를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간(26.3%), 거리(3.5%), 의사소통 어려움(3.5%), 기타(66.7%)였다. 무료 치과진료를 원하지 않는 이유 중 약 67%가 기타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가 치료결과에 대한 불안, 서비스 수준 저하, 신뢰도 저하, 불충분한 설명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료 치과진료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다’는 9.6%에 불과했으며, 67.5%가 무료 치과진료기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 치과진료에 대한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포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료 치과봉사단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와 고 등^{5, 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대처하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무료진료사업의 재정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양질의 진료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료에는 인력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The Farm Worker Family Health Program¹⁶⁾과 유사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련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봉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의 치과진료사업에도 지역 소재 치과대학 학생과 치위생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설문지를 영문과 그 외 3개 외국어로 작성하여 1:1 면접설문을 하였으나 면접관과 응답자들 간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으

며, 응답자들이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과 관련된 내용에 정확한 응답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표본대상이 경기도 일 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114명에게 국한된 것이므로 이 연구결과를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근로자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 구강건강실태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대부분 건강과 의료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과 비교·분석하였기에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진료이용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14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영어 등 4개 외국어로 제작하여 1:1 면접조사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포천시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78.9%였고, 20~29세가 50%를 차지했으며, 체류기간은 3~5년 미만이 68.4%로 가장 많았다.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비율이 56% 정도 되지만 약을 먹거나,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44%나 되었다. 그리고 치과에 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55.2%), 비용 때문에(11.9%)라고 응답하여 치통으로 인한 진료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료 치과진료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다’는 9.6%에 불과했으며 67.5%가 무료 치과진료기관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59.6%가 무료 치과진료를 이용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40.4%는 무료 치과진료를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간(26.3%), 거리(3.5%), 의사소통 어려움(3.5%), 기타(66.7%)였다. 이 결과 무료 치과진료를 원치 않는 기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며, 무료 치과진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최지연.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 지역의 지원단체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대전: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2004.
2.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우수성 제가 인정. 서울:고용노동부;2011:1-6.
3. 이병운, 고준기.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회지 2010;31:323-352.
4.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서울: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2005.
5. 조소양. 국내 이주노동자의 의료이용 형태 및 의료이용만족도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2008.
6.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서울:보건복지부;2011.
7. 고석주, 홍석진, 윤혜정 외 3인. 광주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의 치과진료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0;34(1):107-116.
8. 김주영, 정명희.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 실태 및 우식경험영구치치수.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2):123-133.
9. 김효선.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통합 유형에 따른 교육 의료서비스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4.
10. 정형옥. 2011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성별 거주현황. 수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3-18.
11. 허명희. SPSS 설문지 조사 입문. 서울:SPSS아카데미;2004:26-30.
12. Idler EL, Angel RJ.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in the NHANES-I epidemiologic follow-up study. Am J Pub Health

- 1990;80(4):446-52.
13. 홍승권, 설동훈, 서화정 외 9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서울: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2006:63.
 14. 이지현.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 인식과 의료이용[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2011.
 15. 박은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활동실태와 개선 방안연구. 대전: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2005.
 16. Connor A, Rainer LP, Simcox JB, Tomisee K. Increasing the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to migrant workers families through a community partnership model. Public Health Nursing 2007;24(4):355-360.